

光日春秋

전성철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설된 부서들 중 유독 눈길을 끄는 이름의 부서가 있다. 무엇일까? 바로 지식 경제부. 기존의 산업경제부와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의 일부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된 이 부서는 21세기 지식사회의 중요성을 그대로 반영한 명칭이 아닐까 싶다. 그만큼 지식과 경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지식 사회란 돈 기술이 넘치고 나면 나타나는 사회다. 이제 돈은 넘쳐 흐른다. 좋은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 투자회사들이 돈을 얼마든지 대준다. 기술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업에 뛰어들 수 있고 그래서 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대에 이기는 자는 새로운 지식을 가진 자다.

지식 사회에서는 사회가 극도로 투명화된다. 지금은 개인이 모두 신문사 하나와 방송국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과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가 바로 개개인의 신문과 방송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설된 부서들 중 유독 눈길을 끄는 이름의 부서가 있다. 무엇일까? 바로 지식 경제부. 기존의 산업경제부와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의 일부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된 이 부서는 21세기 지식사회의 중요성을 그대로 반영한 명칭이 아닐까 싶다. 그만큼 지식과 경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기업인들이여, 공부하라!

납기 힘들다. 본질적 경쟁력인 인간관계 의존하지 않은 경쟁력이다. 즉, 품질과 가격의 경쟁력이다. 품질과 가격의 경쟁력은 근원적으로 '지식'에서부터 나온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지식을 통해 경쟁력으로서 이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도산 위기에 처했던 동진엔지니어링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에 의존해 화려하게 부활했다. 바로 '지식'의 힘이었다.

를 접하기 힘들다. "가치 있는 지식은 본질적으로 공부하는 데서 온다." 윤석급 웅진 회장은 '멘탈'이라는 아이디어를 열심히 쫓아다녔던 조찬 강연에서 얻었다고 했다. 그것이 강의든, 책이든 열심히 공부하는 최고경영자(CEO)가 '지식 사회'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최근 국내외 기업교육을 통한 임원 및 사원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50대 그룹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훈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교육비

비중은 0.78%라고 한다. 미국의 2006년 인적자원개발 투자 우수기업(BEST HRD Award Winners) 42개사의 평균인 0.72%나 포천(Fortune) 500대 글로벌 기업들의 교육 관련 정보 교환 모임인 벤치마킹포럼(BMF·Benchmarking Forum)의 평균인 0.51%보다 높다. 기업들이 임원과 직원들의 능력을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기업의 대표주자요, 최첨단 경영전선에서 진두 지휘할 CEO의 교육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의 임원들에게는 인간관계를 맺을 장(場), 네트워킹을 할

장은 너무나 많으나 공부할 수 있는 마땅한 장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 한국의 CEO들은 지속적으로 부담 없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장에 대한 갈증을 느껴왔다. 이제 CEO들도 제대로 교육하는 곳을 찾아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 일부기업들의 첨단 경영기법과 사례들을 배우고, 그 사례들을 통해 기업경영의 통찰력을 얻고, 지식을 날마다 새롭게 유입해야 한다. 기업인들에게 유익한 경영지식과 참 가치를 줄 수 있는 곳을 찾아 공부하는 CEO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리더십은 지식에서 얻는다. 특히, 기업을 살리는 인재를 채용하고 일하게 하고 관리하고 변화시키는 리더십은 비단 경험에서 뿐 아니라 인재경영의 지식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결과다. 21세기 기업들의 필수 생존요건인 변화의 동력 또한 지식에서 비롯된다. 아마추어 바둑 5단이 낱밤을 새우 혼자서 연습한 수일 내에 1급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1급을 이기기 위해서는 책을 틀거나 교수에게 배워서 지식을 쌓아 공부해야 한다. 호황기뿐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도 기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자문유입뿐만 아니라 지식유입이 절실하다. 기업인들이여, 공부하라!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난과 위기 지역경제... 고강도 대책 서둘러라

광주·전남 산업계가 '공포의 1월'에 떨어지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급속히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기반이 취약한 지역 산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지역 실물경제가 빠른 속도로 붕괴하는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광주경제의 대들보인 기아차 광주공장은 올 1분기 생산량을 24% 감축키로 했다.

전남의 대표적인 산단인 여천산단의 가동률은 평균 가동률보다 20% 이상 떨어졌다. 포스코 광양제철은 4호기 고로 개·보수 시기를 1개월가량 앞당길 계획이고, 연초 4일간 휴무했던 금호타이어도 설 연휴를 전후해 8일간 휴무를 검토하고 있다. 경기침체의 한파에 지역 주요 대기업들이 공포 얼어붙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기계가 멈춰선 곳이 허다하고 실업 기계가 돌아가는 공장도 재고물량만 기약 없이 쌓여가고 있다. 언제 폭삭 주저앉

을지 모르는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다. 지금은 어떤 기업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 특히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한계상황에 이른 지역경제는 얽힌 데 얽힌 격으로 실물경제마저 휘청거리 속절없이 무너지는 위기에 처해 있다. 경기침체→고용악화→소비둔화의 악순환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실물부문에 돈이 풀게 해 촉촉이 도산을 막는 게 가장 시급하다. 지금과 같이 금융권의 돈이 실물부문에 흘러들지 않으면 산업계 전반에 부도 대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예상보다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는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속도전이 생명이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동원해야 한다. 이것 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더 이상 지체하면 자칫 지역경제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고강도의 선제대응만이 지역경제의 붕괴 위기를 막는 지름길이다.

'오승우 미술관' 무산시킨 유치한 지역주의

타지역 출신 화가의 이름을 지역 미술관에 쓸 수 없다는 어찌구무없는 이유 때문에 곧 완공될 미술관이 텅 빈 채 개관될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무안군은 지난 2004년 한국 서양화단의 원로작가인 오승우 화백의 작품을 기증받는 대신, 무안군에 '무안군립 오승우미술관'을 개설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진행해 왔었다. 그러나 최근 오 화백의 고향이 무안인 아닌, 화순이라는 이유로 들어 무안군의 일부 미술관들이 오 화백의 이름을 미술관에 쓸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무안군도 개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약 자체가 무산될 처지에 몰렸다고 한다.

오 화백은 협약 당시 무안군에 약 100억원 대에 이르는 자신의 작품 175점을 기증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안군이 의회 발의를 이유로 미술관 명칭을 무안군립미술관으로 개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작품 기증을 취소했다. 5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무안군립미술관은 빈 껍데기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말도 안 되는 군의회의 지역 이기주의, 지자체의 문화 마인드 부족과 무지 때문에 지역문화 명소가 사라지게 됐다. 무안군이 의회의 이 같은 행태는 고승우미술관을 개설한다는 협약이 체결된 뒤 공사를 진행해 왔었다. 그러나 최근 오 화백의 고향이 무안인 아닌, 화순이라는 이유로 들어 무안군의 일부 미술관들이 오 화백의 이름을 미술관에 쓸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무안군도 개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약 자체가 무산될 처지에 몰렸다고 한다. 오 화백은 협약 당시 무안군에 약 100억원 대에 이르는 자신의 작품 175점을 기증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안군이 의회 발의를 이유로 미술관 명칭을 무안군립미술관으로 개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작품 기증을 취소했다. 57억

의로 칼럼

이민철



150년 전 의사나 환자에게 수술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당시만 해도 변변한 마취제도, 심지어 수술하기 전 소독을 위해 손을 씻는 개념 자체도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860년대 무릎이나 팔 등의 절단 수술 후 사망률이 평균 40%가 넘었고 그보다 섬세한 척추수술은 염두도 낼 수 없었다. 그 당시 수술하는 환자가 믿을 것이라고는 신기에 가까운 의사의 손놀림과 50% 남짓한 '우연'의 확률뿐이었다.

(척추관 협착증), 위 아래 척추뼈가 서로 어긋나 있는 경우(척추 전위증), 척추뼈 사이가 비정상적으로 밀려가려는 경우(척추 불안정증) 등이 있다. 대부분의 척추 질환 수술은 피부를 절개하고 척추뼈 일부를 제거해서 작은 구멍만 낸 상태로 현미경을 보며 간단하게 수술을 한다.

이에 비해 지금은 의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해 수술실에서의 감염률은 1% 미만에 불과하며 특히 척추수술 분야에 있어서는 미세현미경 수술, 내시경 및 레이저 치료, 인공디스크 등의 첨단 기

환자중심주의가 대세다

술이 도입돼 수술 성공률은 95% 이상으로 매우 높아졌다.

하지만 과거 수술의 합병증을 경험했던 사람들로 인해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막연한 허리수술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수술 공포증 때문에 시기를 놓쳐 계속 고통을 당하는 환자들을 보고 안타까울 때가 많다.

최근 척추 수술분야의 최대 관심사는 '최소(最少)화'이다. 특히 무수혈 수술, 최소 침습(절개) 등을 그 대표적 트렌드로 꼽을 수 있다.

최소 절개 수술은 현대 의학이 거둔 놀라운 성과 중 하나다. 말 그대로 피부나 조직을 최소한으로 절개해 수술하는 기법으로 출혈량과 통증이 적고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속도가 빠른 것이 장점이다. 회복 속도 뿐만 아니라 미용 측면에서도 성공적이다. 특히 사람의 몸을 지탱하는 척추와 관련된 수술에서는 가능한 수술 부위를 최소화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척추 질환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며 그 치료 방법도 다양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허리디스크는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는 병으로 통증을 허벅지와 다리까지 연결해 나타낸다.

그 외에도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의 구멍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이 있었다. 과거의 척추 유합술은 10cm 이상을 절개하기 때문에 수술 중 수혈이 필요했고 척추근육이 손상돼 초기에 요통이 심하고 회복기간이 길었다. 척추고정 수술을 받는 많은 환자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수술 후 흉터가 크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최근엔 상처가 작고 회복은 빠른 '미니 척추 유합술'이 개발돼 이런 단점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됐다.

'미니 척추 유합술'은 2~3cm 정도 작게 절개한 뒤 이 부위를 통해 레이저, 현미경과 같은 첨단장비를 이용해 돌출된 디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 자리에 디스크 대체물(CAGE)을 삽입해 나사못으로 척추뼈를 고정시키는 수술이다. 절개부위가 작기 때문에 피부나 근육의 손상이 적고, 출혈을 줄일 수 있어 무수혈 수술이 가능하다. 또한 통증이 적어 입원기간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수술 후 다음날이면 보행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정도며, 퇴원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4~5일 정도로 일반 척추 유합술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안전하면서도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고, 고통을 최대한 줄이면서 빠른 회복이 가능한 치료법이어야 한다는 '환자중심주의'가 척추수술의 대세가 된 것이다. <새우리병원 원장>

기고

박지택



광주시립미술관이 위치해 있는 중의공원 일대의 나뭇가지마다 최근 내린 눈으로 눈꽃이 피었다. 미술관 창문을 통해 밖을 보고 있으면 아름다운 설경(雪景)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지난 2007년 10월 문화예술회관 시대를 접고 이곳 중의공원으로 미술관을 신축, 이전했다. 지난해 광주비엔날레와 광주 최초 북극극터형 전시인 '루벤스-바로크 결박'전이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렸다. 또 중의공원으로 자리를 옮긴 뒤 관람객 수가 이전보다 3배 늘었다는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이다.

관람객이 없는 미술관은 그 존재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세계 주요 현대 미술관은 관람객을 '고객'으로 정의하고

운 발전이다.

전시, 교육 이외에도 고객과 함께하기 위한 광주시립미술관의 노력은 더 찾아볼 수 있다. 2008년 3월부터 매주 수요일은 직장인을 위해 미술관 야간연장 운영을 하고 있다. 또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저녁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여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편히 쉬 수 있는 넓은 1층 홀과 공원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옥상정원도 관람객을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다양한 미술 전공서적을 읽을 수 있는 자료실, 가족과 함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중의공원 등은 광주시립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매력이다.

관람객뿐 아니라 지역 작가들을 위해

미술관으로 놀러 오세요

고객 확보를 위해 안전함을 쓰고 있다. 고객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좋은 전시를 기획하는 것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지난해 '루벤스-바로크 결박'전을 개최하여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에도 세계 현대미술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대표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젊은 작가들의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빛 2009'전과 지역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있는 '올해의 작가'석성김정수 전시의 의미 있는 전시를 열 계획이다.

관람객을 위한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지난해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특수아동, 문화 소외계층에 이르기까지 130여 강좌에 약 2천여명이 참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성인실기 강좌 3~4개와 여름방학 기간의 어린이미술교실만을 운영했던 이전과 비교했을 때 놀라

서도 광주시립미술관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앞으로도 작가들을 위해 좋은 전시를 기획하여 초대할 것이다.

또 창작스튜디오의 활성화를 통해 젊은 작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작가들의 전시 공간 확충을 위해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설립한 서울 인사동 갤러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북경아트센터 개관도 추진하고 있다. 관람객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아직도 우리 미술관이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러기에 광주시립미술관은 지역민의 다정한 벗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광주시립미술관에는 꿈과 희망이 있다. 관람객들은 언제든 다양한 예술을 경험하며 즐길 수 있다. 시립미술관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 올 한해에도 더욱 좋은 전시로 관람객과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꿈꾼다.

<광주시립미술관 관장>

돼지고기 등급 판정 2~3단계로 줄여야

양돈농가로서 돼지고기를 판정하는 육질 등급을 최소 2단계, 또는 그게 어렵다면 3단계만으로도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고기는 보통 30개월 정도에 출하하지만 돼지고기의 경우 6개월 간 육성해 출하하기 때문에 육질등급 별 품질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런데도 등급이 낮을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1등급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표시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요즘 축산물공판장에 출하되는 돼지고기의 경락가격은 각 등급별로 키로당 380~

740원 정도씩 차이가 있다. 문제는 육질등급을 나누면서부터 1+의 경우 전체 돼지고기중에 겨우 1.5%도 채 안 나온다는 점이다. 이렇게 최고품질이라고 하는 1+가 너무 적다면니 물량공급에 한계가 있고, 물량이 23%나 되는 2, 3등급은 상대적으로 가격을 낮게 받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돼지를 길러서 출하하는 양돈 농가들은 그 괴짜적인 노력에 비해 품질이 등급에 따른 왜곡된 가격을 받기만 하는 상황에 있다. <▲이종연·곡성군 석곡면>

無等鼓

흑산도는 목포에서 뱃길로 90km 떨어진, 우리나라 유인도 가운데 꽤 큰 섬으로 분류된다. 20여년 전 저쪽까지만 해도 일반 여객선을 타면 대어섯 시간이 족히 걸렸지만, 요즘은 쾌속선으로 두 시간이면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이보다 더 먼 뱃단배를 타고 오가던 시절, 일부들은 사나흘 걸려 흑산도 해역에 나가 고기잡이를 했다. 변변한 낚시터가 없었던 때라 애써 잡은 생선들이 물의 어시장에 이르기도 전에 상해버리기 일쑤였다.

그런데 그 중 귀뚜라미 낚시를 하는 나도 배탈이 안 나는 생선이 있었으니, 바로 흥어였다. 이후 흥어는 생물(生物)보다 사허머(沙蝦)라고 불렀던 흥어(興魚)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사허 흥어 얘기는 조선조 학자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도 '나주인들은 사허 흥어를 즐겨 먹는데, 탁주(막걸리) 안주로 곁들여 먹는다'고 전해진다.

그 흥어가 요즘 '홍탁삼합(洪濁三合)'이라는 이름으로 최고의 안주 반열에 올랐다. 사허 흥어에다 탁주, 비겍살이

불은 삶은 돼지고기가 어울린 흥탁삼합은 신김치와 궁합을 이뤘 전국각의 주당들을 유혹하고 있다. 냄새 때문에 한때 전남지역 사람들만 먹는 '기괴 생선' 취급을 받던 흥어를 떠올리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기세를 몰아, 최근 나주시가 흥어에 대한 산업화 작업에 나섰다. 나주 영산포는 1980년대 초 영산강 하구 언이 건설되기 전까지 서남해안에서 잡아올린 흥어의 70% 이상이 유류된 유서깊은 흥어포구였다.

나주시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30억원을 투입해 흥어 가공식품 개발에서부터 흥어 아카데미, 흥어단지 개발, 흥어거리 조성 등 흥어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김치와 더불어 전남음식의 아이콘이 된 흥어를 상품화할 수 있는 데에 좋은 기회다. 체계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통해 흥어가 나주지역 경제 살리기엔 앞장서는 '흥아 생선'이 됐으면 한다. /이종태 사회2부장 jilee@kwangju.co.kr

흥어(洪魚)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